

겨울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집중'

전주시 보건소, 폭설·한파 등 피해 최소화 위해 보온용품 지급·건강수칙 교육 등 진행

겨울 한파 속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진선)는 폭설·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14명의 전문 인력들은 올겨울 독거

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경로당을 방문해 열압·혈당과 같은 기초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주요 질환별 겨울철 건강수칙에 대해 교육을 했다. 보건소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1240여 명에 대해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내복도 지급했다. 특히 한파주의보(영하 12°C 이하)나 한파경보(영하 15°C 이하) 발령 시 안부 전화와 수시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심혈관계질환자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파대비 행동요령과 병관길 낙상

사고 예방법, 한랭질환 증상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아영 기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제20회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장애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 성료

전북도장애인복지관,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운영

가족애를 통한 다양한 집단활동은 선보이며 장애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제20회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을 지난 7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장애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매주 토요일 만 14세 미만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형제자매들을 도우며 시작됐고 '체육, 미술, 미술,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집단 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강병은 관장은 "장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뿐 아니라 부모, 가족, 가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전북경찰청, 내년 6월 25일까지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고강도 특별단속 전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

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전북경찰청은 경찰청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의 총괄지휘하에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편성,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히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법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등)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

리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전북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업익준 완산구청장,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현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은 업익준 완산구청장은 시설 이용자 불편사항을 살피고 시설 운영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7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업 구청장은 시설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상태를 두루 살피고, 사회복지현장을 위해 노력

하는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업익준 완산구청장은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살펴 '알차고 희망가득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민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가족관계 증진사업, 급식서비스 지원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동의 세대간 소통 증진을 위해 '요리교실, 공예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플러스 사업을 완산구청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 도서관 여행'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각광

전주지역 도서관의 공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오는 17일 여행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매주 토요일 3회씩(2월~11월) 총 120회 동안 1436명이 전주 도서관여행에 참여했으며, 매달 큰 인기를 받았다. 특히 타지역 참여 여행자는 지난달 전체 여행자 68%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알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

대로 하반기에는 수요가 높은 가족형 코스를 확대하고 새로 개관한 도서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해 6개의 새로운 주제별 여행 코스를 운영했다. 또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에는 특별한 여행을 선호하는 MZ세대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의 도서관 여행 코스 구성 만족도 95.5점 도서관 여행 해설사에 대한 만족도 96.5점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대응 '최우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2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재난대응활동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전국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도 전국 3위에 입상하는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한층 높아

졌다. 긴급구조훈련 및 재난대응활동 평가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3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졌다. 주요 평가내용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활동, 통

제단장 긴급구조지원기관 통제 및 현장지휘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또 소방청 주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상으로 시(市) 그룹 9개 본부와 도(道)그룹 10개 본부를 분리 실시한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도 전국 도(道)부에서 전주완산소방서가 주관해 3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사고 수습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재난수습능력의 좋은 평가는 대형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제 도내에서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2월 1일)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했다.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 현장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겸용 창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